

문화성향과 사회적지지*

홍 승 범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박 혜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사회적 지지 추구에 관한 문화 간 비교 연구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함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지지 추구에 대한 문화 내 개인차 연구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비교문화 연구들과 문화 내 개인차 연구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비교문화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를 측정하고, 이를 문화성향과 연관 지어 분석하였다(연구 1과 2).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 역시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연구 2). 연구 1의 결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을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2를 통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하는 동시에 스트레스를 겪는 지인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보다 균형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교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문화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후속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문화성향, 사회적 지지 제공, 사회적 지지 추구

*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 교신저자: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Tel: 02-920-7303, E-mail: hpark@sungshin.ac.kr

'He that conceals his grief finds no remedy for it'이라는 터키 속담이 있다. 이는 슬픔을 숨기는 사람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타인에게 털어놓고 조언과 위로를 구함으로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개인의 문화성향, 즉 얼마나 집단주의적인가, 혹은 개인주의적인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인가? 구체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비하여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부담을 줄 것을 염려하여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할 것인가? 최근 일련의 비교문화 연구들은 북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 비하여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추구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Kim, Sherman, Ko, & Taylor, 2006; Kim, Sherman, & Taylor, 2008; Taylor, Sherman, Kim, Jarcho, Takagi, & Dunagan, 2004).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는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시되므로, 개인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보다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할 것'이라는 직관적인 예측과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 Kim과 동료들(2008)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질과 자신의 체면 손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하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주저할 것인가? 그간 사회적 지지의 '추구' 측면에 관해서는 다수의 비교문화 연구가 수

행되었던 반면(Kim et al., 2006; Kim et al., 2008; Taylor et al., 2004; Uchida, Kitayama, Mesquita, Reyes, & Morling, 2008), 사회적 지지의 '제공' 측면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제공을 함께 살펴보고, 더 나아가 문화성향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고 제공하는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상호 도움과 의무를 주고받는 사회적 관계망에 속해 있다는 지각, 혹은 경험'이라고 정의된다(Wills, 1991). 사회적 지지는 파트너, 친척, 친구, 직장동료,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 그리고 헌신적인 애완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유익한 사회적 지지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로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대처전략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로서, 서비스, 재정적 지원 및 다른 형태의 구체적인 원조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는 타인에게 온정, 혹은 애정 어린 돌봄과 배려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이다(Taylor, 2007).

그동안 일련의 연구들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

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였다(Cohen, Sherrod, & Clark, 1986; Dunkel-Schetter, Folkman, & Lazarus, 1987; Kim et al., 2006). 예를 들어, Heller(1979)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 개방, 낮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사람의 사회적 기술이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고 친밀한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 대인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어려움 없이 잘 공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사회적 장면에서 불안을 덜 느끼는 사람일수록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잘 이끌어 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개인 내적 요인들이 사회적 지지의 효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본질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 지각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및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주고 받는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문화성향

문화권에 따라 개인과 집단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목표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가가 다르다(Adams & Plaut, 2003; Markus & Kitayama, 1991). 구체적으로, 북미

및 서구 유럽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율적이고 사회적으로 분리된 자기가 강조된다(Adams & Plaut, 2003). 사람들은 개인적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며, 타인과의 관계 역시 자신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여긴다(Kitayama & Park, 2007). 이러한 문화 맥락 속에서 개인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고, 관심의 초점을 타인이나 집단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두므로,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회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Kim et al., 2006).

이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을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상호 간 관계에서 도출되는 쌍무적인 역할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 배려가 사회 행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조금호, 2007).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관계에 초점을 두며, 집단 내 조화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0) 집단 구성원들의 욕구와 기대에 자신을 맞추고, 그것에 따라 적응하려 노력한다(Morling, Kitayama, & Miyamoto, 2003). 또한, 이러한 문화 맥락에 속한 개인들은 다른 사람과의 연계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며, 개인적 신념, 욕구, 그리고 이익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한다(Kitayama & Uchida, 2005).

기존 문화 연구들은 한 문화 내에서도 문화성향의 개인차가 존재함을 보였다(Benet-Martinez & Karakitapoglu-Aygun, 2003; Benet-Martinez, Leu, Lee, & Morris, 2002; Fu, Morris, Lee, Chao, Chiu, & Hong, 2007;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Triandis, Chan,

Bhawuk, & Iwao, 1995). 즉, 동일한 문화에 속하였다 할지라도 개인마다 자신의 문화에서 장려되는 가치나 신념을 수용하고 따르는 정도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몇몇 연구들은 미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고하였다(Conway, Sexton, & Tweed, 2006; Plaut, Markus, & Lachman, 2002; Vandello & Cohen, 1999). 또한, 최근의 한 연구는 일본인들 가운데 홋카이도 거주민들이 일본 내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더 독립적임을 보인 바 있다(Kitayama, Ishii, Imada, Takemura, & Ramaswamy, 2006). 요컨대, 이러한 연구들은 한 문화 내에서도 의미 있는 문화성향의 개인차를 포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개인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 혹은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 혹은 상황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반면(Markus & Kitayama, 1991), 집단주의 문화 맥락에 속한 사람들, 혹은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협동, 상호성,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 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높으며,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이의 안녕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낀다(Hui & Triandis, 1986). 이와 같이 스스로를 얼마나 독립적인 존재로, 혹은 상호의존적 존재로 여기는지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기초로 하여 문화성향에 따라 사회적 지지 추구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추구

사회적 지지에 관한 기존의 비교문화 연구들은 상이한 문화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 추구에서 보이는 차이를 밝히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여 왔다. 일례로, 일련의 선행 연구들에서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Kim et al., 2006; Kim et al., 2008; Taylor et al., 2004). 구체적으로, Taylor와 동료 연구자들(2004)은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유럽계 미국인들, 아시아인들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각자가 사회관계 및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였던 스트레스를 회상하고 그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한 다음,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의 관계를 반복검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대학생들, 미국 내에 거주 중인 아시아인들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유럽계 미국인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하며,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관찰하였다. Kim과 그의 동료들(2006)은 이러한 현상을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특성을 통해 설명하였다. 즉,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여 개인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자신의 체면을 잃게 만들고, 더 나아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덜 추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성향의 개인차 연구들은, 비교문화 연구들과는 다르게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함과 동시에 많이 추구함을 보였다. 예를 들어, 박경란(2000)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상진, 최인재(1999)가 개발한 ‘우리의식’ 질문지와 Hui(1988)가 개발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척도(INDCOL)를 실시하여 문화성향 집단을 구분한 다음, 각자가 평상시에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다고 지각한 반면, 우리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각각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변상우(2003)는 연구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최근 경험한 대인관계(친구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와 당면 과제(학업 문제, 장애 및 진로 문제 등) 스트레스를 회상하고 그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한 다음, 대학생들이 자기 조절, 초월, 적극적 해결,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중심 성향자들은 자기 조절과 적극적 해결을 사용하여, 집단주의 성향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다루고자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처럼,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문화 내 개인차 연구들은 개인중심 성향자들이 집단중심 성향자들에 비하여 평상시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박경란, 2000; 원은정, 2005; 이혜란, 2006),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비하여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함을 보여주었다(변상우, 2003; 이윤조, 2007). 요컨대, 사회

적 지지의 추구에 관한 문화 간 비교 연구들과 문화 내 개인차 연구들이 상이한 결과를 보이므로, 본 논문의 연구 1에서는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의 관계에 대하여 선험적인 가설을 세우기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이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제공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행위를 주고받는 과정이므로(Cohen & Hoberman, 1983),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과정은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자신이 타인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 간에 균형이 유지되는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Antonucci & Jackson, 1990; Bowling, Beehr, & Swader, 2004; Jou & Fukada, 2002). Jou와 Fukada(2002)가 3개월 동안 일본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제공과 추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연구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제공한 사회적 지지와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 간에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이는 죄책감과 불쾌함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문화성향에 따라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개인적 이익과 집단의 목표 중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는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Markus & Kitayama, 1991)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지지의 제공과 추구가 서로 균

형을 유지하는 정도에서도 역시 문화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조궁호(2007)는 상호의존적 인간관이 중심적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사회 행위의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라 여겨져, 개인주의 문화에 비하여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것이다. 그렇다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곤란에 처한 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상호의존적 행위보다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중시하며(조궁호, 2003), 조화로운 관계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만큼 상호 교환적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비교적 적게 느낄 것이다(Shen, Wan, & Wyer, 2011). 따라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상호 교환적으로 주고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연구 목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수행되었다. 첫째, 사회적 지지 추구에 관한 문화 간 비교 연구들(Kim et al., 2006; Kim et al., 2008; Taylor et al., 2004)과 문화 내 개인차 연구들(변상우, 2003; 이윤조, 2007)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므로, 해당 연구 문제에 대해 탐색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선행 비교문화 연구(Taylor et al., 2004)에서와 동일한 척도 및 절차를 사용하여 연구참가자들이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과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 정도를 측정하였다.¹⁾ 그리고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측정하여,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사회적 지지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제공 측면들을 함께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화성향에 따라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개인적 이익과 집단의 목표 중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는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Markus & Kitayama, 1991)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의 교환과정에서도 문화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하고 동시에 많이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타인과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데에 있어 균형

1) Taylor와 동료들(2004)은 '전반적으로 서구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반면,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문화 내에서도 문화성향의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고, 이 점수들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 점수는 연속변수로 분석에 포함되었으므로, 본 연구는 문화 집단 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던 Taylor 등과 분석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을 이루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에 반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과 맺는 관계보다는 자신의 목표에 더 초점을 맞추므로 사회적 지지의 제공과 추구 간 균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2에서는 연구참가자들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 정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던 지인에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였는지를 측정하고, 문화성향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교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1

앞서 개관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들과 문화 내 개인차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이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어떠한 관련을 보이는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생 255명이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구 1에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한 총 252명(남자 80명, 여자 169명, 성별 미확인 3명; 연령 평균 = 21.80세, 표준편차 =

2.33세)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측정도구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의 측정

연구참가자들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와 동료들(1995)이 개발하고 김기범(1996)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문화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기범이 표준화한 이 척도는 Singelis 등이 개발한 원래의 척도와 거의 유사한 요인구조를 보이며, 높은 수준의 공존타당도와 예언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척도에는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두 가지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주의 문화성향은 “나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집단주의 문화성향은 “내가 속한 집단들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와 같은 문항을 통하여 측정한다. 연구참가자들은 각각의 문항을 읽고 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하였다(1: 전혀 아니다, 7: 매우 그렇다).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든 연구참가자들에게 하나의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되었다. 김기범이 보고한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개인주의 문화성향에 대하여 .77, 집단주의 문화성향에 대하여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1과 .86이었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측정

선행 연구(Taylor et al., 2004)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참가자들이 부모, 친구, 선후배

등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성적, 과제 등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먼저, 최근의 사회적 및 학업 스트레스 경험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한 후, 각 스트레스 경험에 뒤이어 제시되는 대처전략 관련 질문들에 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스트레스 경험과 학업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기술 순서는 연구참가자들 간 상쇄평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정기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경험합니다. 함께 자취하는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성친구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으며,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귀하께서 경험하셨던 가장 큰 사회적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무엇이었던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관하여 아래의 빈 칸에 간략하게(3-5문장 정도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시문을 받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당히 정기적으로 학업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편의 보고서 마감 시한이 겹쳤을 수도 있고, 중요한 과제물에 대하여 나쁜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으며, 수강하는 과목

이 너무 어려웠거나 할 일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귀하께서 경험하셨던 가장 큰 학업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무엇이었던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대하여 아래의 빈 칸에 간략하게(3-5문장 정도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각각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의 추구를 비롯한 여러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어느 정도 사용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arver, Scheier와 Weintraub(1989)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COPE scales)를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이 척도에는 능동적 대처, 계획, 대립되는 활동들을 억압하기, 절제, 도구적 사회지지의 추구, 정서적 사회지지의 추구, 긍정적 재해석, 수용, 부인, 종교에 의지하기와 같은 총 10개의 하위척도가 있으며, 각 하위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²⁾ 연구참가자들은 각각의 문항을 읽고 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 표시하였다(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자, Taylor와 동료들의 연구(2004)에서와 같이 10개의 하위척도들 가운데

2) 앞의 5개의 하위척도는 문제 중심 대처의 여러 측면들을 측정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위척도들은 정서 중심 대처의 여러 측면들을 측정하는 것이다(Carver et al., 1989). 원 척도에는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 유형의 대처 반응들, 즉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정서를 터뜨리기 행동적 이탈 및 정신적 이탈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하위척도들은 본 연구의 목적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하지 않았다.

도구적 사회지지 및 정서적 사회지지의 추구 관련 하위척도들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도구적 사회지지를 추구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조언, 도움, 혹은 정보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본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서적 사회지지의 추구는 타인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원, 동정, 혹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과 내 감정에 대해 논의한다”와 같은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경우 도구적 사회지지의 추구 척도와 정서적 사회지지의 추구 척도가 각각 .87과 .88이었으며,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각각 .88과 .86이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Taylor et al., 2004)에서와 같이 연구참가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및 학업 스트레스 각각을 다루는 데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택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의 응답 순서는 연구참가자들 간 상쇄평형화 되었다.

절차

이 연구는 심리학 전공 강의 시간에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참가자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다고 소개 받은 후, 측정도구들이 포함된 소책자를 받았다. 문화성향 측정도구와 스트레스 대처전략 측정도구의 제시 순서는 연구참가자들 간 상쇄평형화 되었다. 질

문지를 주의 깊게 읽고 응답할 수 있도록 연구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약 20-25분)이 주어졌다.

결과 및 논의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

연구참가자들의 집단주의 성향($M = 4.84$, $SD = .71$)과 개인주의 성향($M = 4.79$, $SD = .61$)의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251) = 1.57$, *n.s.* 그러나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즉, 집단주의 점수 - 개인주의 점수 > 0)이 전체 연구참가자 252명 가운데 138명으로, 표본에서 다수(54.8%)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의 성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F(1, 247) = .21$, *n.s.*

사회적 지지의 추구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인가 학업 스트레스 상황인가에 따라 도구적 사회지지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과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구적 사회지지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한 정도를 각각 평균하였다. 이 평균 점수들에 대하여 스트레스 상황(사회적 vs. 학업)과 사회적 지지 유형(도구적 vs. 정서적)을 연구참가자 내 요인으로, 성별을 연구참가자 간 요인으로 포함시킨 mixed ANOVA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가자들이 학업 스트레스 상황($M = 3.38, SD = .84$)에 비하여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M = 3.62, SD = .84$)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F(1, 246) = 15.46, p < .001$. 또한, 연구참가자들은 정서적 사회지지($M = 3.45, SD = .83$)에 비하여 도구적 사회지지($M = 3.55, SD = .77$)를 평균적으로 더 많이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246) = 10.59, p < .001$. 이와 같은 주효과들과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과 사회적 지지 유형 간의 상호작용도 관찰되었다, $F(1, 246) = 4.48, p < .05$.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도구적 사회지지를 추구한 정도($M = 3.63, SD = .88$)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한 정도($M = 3.60, SD = .90$)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t(251) = .74, n.s.$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연구참가자들은 정서적 사회지지($M = 3.30, SD = .95$)에 비하여 도구적 사회지지($M = 3.46, SD = .89$)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추구하였다, $t(250) = 3.26, p < .001$.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 있어 일련의 성차가 관찰되었다. 먼저 여자 연구참가자들($M = 3.61, SD = .70$)은 남자 연구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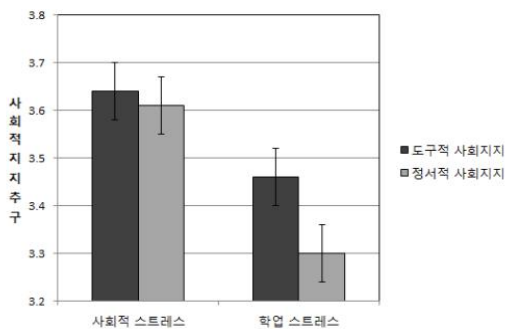


그림 1.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도구적 및 정서적 사회지지 추구 수준

($M = 3.27, SD = .79$)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였다, $F(1, 246) = 11.16, p < .001$. 이와 같은 주효과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 유형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관찰되었다, $F(1, 246) = 6.11, p < .05$. 구체적으로, 남성들은 정서적 사회지지($M = 3.15, SD = .89$)에 비하여 도구적 사회지지($M = 3.40, SD = .86$)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추구하였다, $t(79) = 3.04, p = .005$.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 도구적 사회지지를 추구한 정도($M = 3.62, SD = .73$)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한 정도($M = 3.59, SD = .77$)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t(168) = .81, n.s.$ 한편, 스트레스 상황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스트레스 상황과 사회적 지지 유형 및 성별 간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F_s(1, 246) = 3.46$ 과 2.36 , 모두 $n.s.$

개인주의 성향 및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의 관계

연구 1의 주목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가 문화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스트레스 및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구적 사회지지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한 정도를 평균한 전반적 사회적 지지 추구 점수를 준거변수로,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예측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성향은 사회적 지지의 추구를 예측하지 못하였던 반면($\beta = .00, n.s.$), 집단주의 성향은 사회적 지지의 추구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9, p < .001$). 즉,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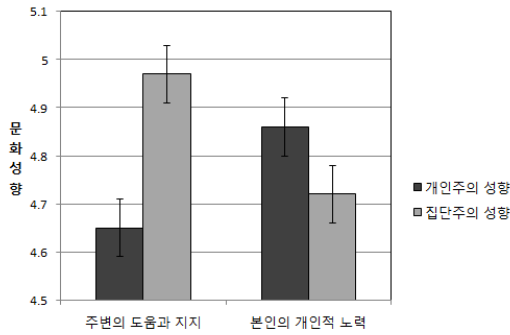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스트레스 해결에 유용한 대처전략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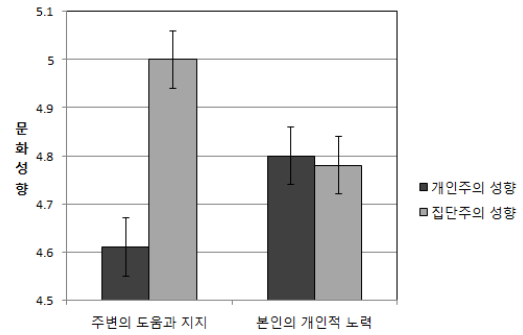


그림 3. 학업 스트레스 해결에 유용한 대처전략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터 사회적 지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데에 있어 문화성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및 학업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이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보다 더 유용하였다고 보고한 연구참가자들과 반대로 응답한 연구참가자들의 문화성향이 다른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지에 비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이 더 유용했다고 답한 연구참가자들($n = 124$)의 경우 개인주의 성향($M = 4.86, SD = .66$)이 집단주의 성향($M = 4.72, SD = .70$)에 비하여 경계선 수준에서 더 높았다, $t(123) = 1.93, p = .056$. 반면,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지가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보다 더 유용했다고 응답한 연구참가자들($n = 125$)의 경우 집단주의 성향($M = 4.97, SD = .70$)이 개인주의 성향($M = 4.65, SD = .66$)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24) = 4.03, p < .001$.

다음으로,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업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본인의 개인적인 노력이 보다 유용했다고 평정한 사람들($n = 182$)의 경우 개인주의 성향($M = 4.80, SD = .69$)과 집단주의 성향($M = 4.78, SD = .73$)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t(181) = .35, n.s$. 반면, 주변의 도움과 지지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보다 더 유용했다고 지각한 사람들($n = 69$)의 경우 집단주의 성향($M = 5.00, SD = .63$)이 개인주의 성향($M = 4.61, SD = .58$)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68) = 4.21, p < .001$.³⁾

3)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의 다른 하위척도들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 대처($r = .32, p < .01$), 계획하기($r = .21, p < .01$)와 같은 개인적 노력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목표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대처전략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스트레스를 다루고자 추구하였던 도구적

종합하건대, 연구 1에서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개인적 노력에 비하여 주변의 도움이 더 유용했다고 지각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주변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더 유용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한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1의 결과들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며,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문화 내 개인차 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변상우, 2003; 이운조, 2007). 그러나 이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한다는, 선행 문화비교 연구들의 결과(Kim et al., 2006; Kim et al., 2008; Taylor., 2004)와는 상반된 것이다.

연구 2

연구 1은 선행 비교문화 연구들(Kim et al., 2006; Kim et al., 2008; Taylor., 2004)과는 다르게,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함을 보여주었다. 연구 2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1의 결과를 다시 한 번 검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제공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됨(Sarason, Sarason, 지지와 정서적 지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Hacker, & Basham, 1985; Sroufe & Fleeson, 1986)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화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사회적 지지의 추구 측면에 집중되어 왔음(Kim et al., 2006; Kim et al., 2008; Taylor et al., 2004; Uchida et al., 2008)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제공을 함께 측정하여,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교환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 강좌를 수강하는 학부생 304명이 학점 이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구 2에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명을 제외한 총 284명(남자 110명, 여자 171명, 성별 미확인 3명; 연령 평균 = 21.84세, 표준편차 = 2.18세)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측정도구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의 측정

연구 1에서와 동일한 문화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2에서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 하위척도들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각각 .78과 .80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 대한 측정

연구 1에서와 같이, 먼저 연구참가자들로 하여금 최근 3개월 동안 경험하였던 가장 큰 사회적 및 학업 스트레스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각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추구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1에서 사용하였던 Carver 등(1989)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 가운데에서 도구적 사회지지와 정서적 사회지지의 추구에 관한 하위척도들을 제시하였다. 연구 2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경우 도구적 사회지지의 추구 척도와 정서적 사회지지의 추구 척도가 각각 .77과 .83이었고,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각각 .81과 .84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제공에 대한 측정

각 연구참가자가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최근 사회적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던 연구참가자의 지인을 떠올리도록 하였다. 그 다음, 이 지인과의 관계(예: 고등학교 친구, 친형제자매, 선후배)와 이 지인의 성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가자들은 해당 지인과 알고 지낸 기간을 개월 단위로 표시하였으며, 이 지인과 친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1: 전혀 친하지 않다, 7: 매우 친하다). 이후 해당 지인이 경험하였던 스트레스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은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지시문을 받았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정기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경험합니다. 함께 자취하는 친구들과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성친구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으며,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귀하의 지인들 중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의 지인께서 경험하셨던 사회적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아래의 빈 칸에 간략하게(3-5문장 정도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시문을 받았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정기적으로 학업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경험합니다. 여러 편의 보고서 마감 시한이 겹쳤을 수도 있고, 중요한 과제물에 대하여 나쁜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으며, 수강하는 과목이 너무 어려웠거나 할 일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귀하의 지인들 중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이 지인은 앞서 사회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떠올리셨던 분과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지인께서 경험하셨던 학업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아래의 빈 칸에 간략하게(3-5문장 정도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후 각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제공하였는지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Carver 등(1989)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 중 도구적 사회지지의 추구하고 정서적 사회지지의 추구에 관한 항목들을 사회적 지지의 제공에 대하여 묻는 내용이 되도록 수정하여 제시하였다(표 1 참조). 연구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표시하였다(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표 1. 연구 2에서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제공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들

사회적 지지의 추구	사회적 지지의 제공
유사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본다	내가 그 지인과 유사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려준다
상황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그 지인이 상황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뉜다
다른 사람과 내 감정에 대해 논의한다	그 지인의 감정에 대해 논의한다
친구 혹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고자 노력한다	친구 혹은 가족으로서 그 지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그 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얻으려 노력한다	그 지인에게 무엇을 할지에 대해 조언을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과 이해를 받는다	그 지인을 동정하고 이해해준다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주선한다

사회적 스트레스의 경우 도구적 사회지지의 제공 척도와 정서적 사회지지의 제공 척도가 각각 .67과 .77이었으며, 학업 스트레스의 경우 각각 .66과 .75였다. 사회적 지지의 추구를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 답하는 순서는 연구참가자들 간 상쇄평형화 하였다.

회적 지지에 관한 두 척도들의 중간에 제시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이 질문지를 주의 깊게 읽고 응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약 20-25분)을 주었다.

결과 및 논의

절차

이 연구는 심리학 전공 강의 시간에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이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에 있다고 소개 받은 후, 측정도구들이 포함된 소책자를 받았다.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제공을 측정하는 척도들의 제시 순서는 상쇄평형화 되었으며, 문화성향 척도는 사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

연구 2의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개인주의 성향($M = 4.69, SD = .66$)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M = 4.86, SD = .6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83) = 3.85, p < .001$. 또한, 개인주의 성향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즉, 집단주의 점수 - 개인주의 점수 > 0)이 전체 연구참가자 284명 가운데 179명으

로,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표본에서 다수(59.9%)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의 성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F(1, 279) = .05, n.s.$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제공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인가 학업 스트레스 상황인가에 따라 도구적 사회지지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하고 제공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과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구적 사회지지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하고 제공한 정도를 각각 평균하였다. 이 평균 점수들에 대하여 스트레스 상황(사회적 vs. 학업), 사회적 지지 유형(도구적 vs.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제공 및 추구(제공 vs. 추구)를 연구참가자 내 요인으로, 성별을 연구참가자 간 요인으로 포함시킨 mixed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추구한 정도가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연구참가자들이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M = 3.59, SD = .61$)하고 추구($M = 3.30, SD = .75$)한 정도에 비하여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제공($M = 3.68, SD = .61$)하고 추구($M = 3.44, SD = .75$)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F(1, 279) = 7.93, p < .005$. 그리고 사회적 지지 유형의 주효과도 관찰되었다. 즉, 연구참가자들은 도구적 사회지지의 제공($M = 3.39, SD = .60$)과 추구($M = 3.31, SD = .70$)에 비하여 정서적 사회지지를 평균적으로 더 많이 제공($M = 3.89, SD = .57$)하고 추구($M = 3.43, SD = .75$)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279) = 86.33, p < .001$. 이와 같은 주효과들과 더불어, 스트레스 상황과 사회적 지지 유형 간의 상호작용도 관찰되었다, $F(1, 279) = 21.98, p < .001$.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이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M = 3.35, SD = .64$)과 학업 스트레스 상황($M = 3.34, SD = .61$)에서 도구적 사회지지를 주고받은 정도는 서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t(283) = .31, n.s.$ 그러나 연구참가자들은 학업 스트레스 상황($M = 3.57, SD = .66$)에 비하여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M = 3.76, SD = .61$)에서 정서적 사회지지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제공하고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t(283) = 5.06, p < .001$.

또한, 연구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추구($M = 3.37, SD = .64$)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의 제공($M = 3.64, SD = .50$)을 더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1, 279) = 50.02, p < .001$. 이에 더하여, 사회적 지지 유형과 사회적 지지 제공 및 추구 간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미하였다, $F(1, 279) = 74.79, p < .001$.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이 도구적 사회지지를 제공한 정도($M = 3.39, SD = .59$)와 추구한 정도($M = 3.31, SD = .70$)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283) = 1.84, n.s.$ 그러나 연구참가자들은 자신이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하고 제공한 정도($M = 3.43, SD = .75$)에 비하여 지인에게 자신이 정서적 사회지지를 제공한 정도($M = 3.89, SD = .57$)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t(283) = 10.43, p < .001$.⁴⁾ 한편, 스트레스 상황과 사회적 지지

4) 도구적 사회지지의 경우에는 추구하고 제공 수준 간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적 사회지지의 경우 자신이 추구하고 제공한 정도보다 타인에게 제공한 정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는 결과는 일종의 자기

제공 및 추구 간의 상호작용 효과와 스트레스 상황과 사회적 지지 유형 및 사회적 지지 제공 및 추구 간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_s(1, 279) = .93$ 와 2.08 , 모두 *n.s.*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유형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F(1, 279) = 12.68$, $p < .001$. 구체적으로, 도구적 사회지지를 추구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남성들($M = 3.38$, $SD = .56$)과 여성들($M = 3.33$, $SD = .54$) 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t(283) = .40$, *n.s.* 그러나 정서적 사회지지의 경우, 남성들($M = 3.56$, $SD = .53$)에 비하여 여성들($M = 3.73$, $SD = .57$)이 유의미하게 더 많이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t(283) = 2.27$, $p < .05$. 그러나 사회적 지지 제공 및 추구하고 성별 간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F(1, 279) = .36$, *n.s.*⁵⁾

고양 편향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도구적 지지의 경우 구체적인 조언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추구하고 제공했는지를 판단할 객관적 준거가 비교적 뚜렷한 반면, 타인에게 정신적인 지원 및 이해를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의 경우 객관적인 준거가 불명확하여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Dunning, Meyerowitz, & Holzberg, 1989). 따라서 연구참가자들이 도구적 지지에 비하여 정서적 지지는 자신이 추구하고 정도보다 주변 지인에게 더 많이 제공했다고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고 제공하는 정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거나, 혹은 연구참가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은 지인의 보고를 연구참가자의 자기 보고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제공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대상을 가족, 이성 친구, 동성 친

개인주의 성향 및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의 관계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2 참가자들의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예측변수로, 사회적 스트레스 및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구적 사회지지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추구한 정도를 평균한 전반적 사회적 지지 추구 점수를 준거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성향은 사회적 지지 추구를 예측하지 못하였던 반면($\beta = -.01$, *n.s.*), 집단주의 성향은 사회적 지지의 추구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 = .32$, $p < .001$). 즉, 연구 1과 일관되게, 연구 2에서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개인주의 성향 및 집단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 제공의 관계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제공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구적 사회지지와 정서적 사회지지를 평균한 전반적 사회적 지지 제공

구 및 학교 선후배로 분류하여 각 대상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정도를 비교하였으나, 사회적 스트레스와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두 대상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F_s(2, 280) = .91$ 과 $.80$, 모두 *n.s.*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대상의 성별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참가자들은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성보다 동성의 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chi^2(1) = 54.52$ 와 $\chi^2(1) = 56.21$, 모두 $p < .01$.

을 준거변수로,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예측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성향이 사회적 지지의 제공을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과 다르게($\beta = .07, n.s.$), 집단주의 성향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beta = .21, p < .01$). 즉,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겪는 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교환

다음으로, 문화성향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제공이 균형을 이루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 제공 점수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 점수를 뺀 차이점수를 구하였다. 이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추구한 정도가 유사하였음을, 즉 사회적 지지를 균형적으로 주고받았음을 의미한다. 이 [사회적 지지 제공-사회적 지지 추구를 준거변수로,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예측변수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성향은 사회적 지지의 제공과 추구 간의 차이를 예측하지 못하였던 반면($\beta = .07, n.s.$), 집단주의 성향은 [사회적 지지 제공-사회적 지지 추구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beta = -.16, p < .01$). 즉, 개인주의 성향을 통제하였을 때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의 제공과 추구 수준 간의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집단주의 점수를 기준으로 상, 하위 50%에 속하는 연구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어느 정도 추구하고 제공하

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주의 상위자들($M = 3.73, SD = .48$)은 집단주의 하위자들($M = 3.54, SD = .50$)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t(282) = 3.30$. 더불어, 집단주의 상위자들($M = 3.55, SD = .60$)은 하위자들($M = 3.20, SD = .63$)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추구하였음도 관찰할 수 있었다, $t(282) = 4.78, p < .001$. 즉,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추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보다 상호 교환적으로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연구 2에서 개인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추구 간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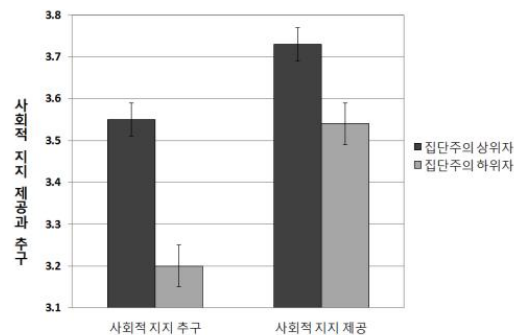


그림 4.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사회적 지지 제공과 추구 수준(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집단주의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50%에 속하는 집단주의 상위자와 하위 50%에 속하는 집단주의 하위자의 사회적 지지 제공과 추구 점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는 집단의 임의적 구분 없이 집단주의 점수를 연속변수로 고려하였다.)

1의 결과가 반복검증되었다. 더 나아가, 연구 참가자들의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질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많이 제공하였음도 관찰하였다. 즉,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이 추구하여, 제공과 추구 수준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인들과 더욱 균형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추구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들과 문화 내 개인차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비교문화 연구(Taylor et al., 2004)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 수준을 측정하고, 개인의 문화성향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추구 측면만을 주로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의 제공 측면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개인의 문화성향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표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을 통해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 2에서 반복검증되었다. 또한, 연구 1에서 주변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적 노력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더 유용하다고 지각한 사람들은 보다 집단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주변으로부터의 도움보다는 개인적 노력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보다 유용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컨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가 더 유용하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추구한다는 기존의 연구들(Kim et al., 2006; Kim et al., 2008; Taylor et al., 2004)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다. 오히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기보다 본인의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고자 하는 반면,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과 지지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일련의 문화 내적 비교 연구들(변상우, 2003; 이윤조, 2007)에서 관찰된 바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겪는 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협동, 배려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주장(Hui & Triandis, 1986)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제공 및 추구 간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지인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 정도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 정도 간의 차이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주변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지지를 상호 교환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지지는 주변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다 집단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적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추구'한 정도와 '제공'한 정도를 자기보고 방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즉, 개인의 실제 사회적 지지 수혜 정도를 살펴본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 지지의 '추구'와 사회적 지지의 '제공' 간에 개념상 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가자들이 실험 장면에서 실제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견주어볼 필요가 있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는 선행 비교문화 연구들과는 달리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나타난 차이가 반드시 문화 내 개인들 간의 차이와 상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에 관한 문화 간 비교 연구와 문화 내 개인차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사회적 지지에 관한 문화 간 연구와 문화 내 개인차 연구가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는 이유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요인을 아래와 같이 추론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하거나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며, 어떤 성향의 개인들이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지가 사회적 지지의 추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선,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지각할수록 질병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때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더욱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Kitayama, Karasawa, Curhan, Markus, Kawakami, Miyamoto, Love, Coe, & Ryff, 2012).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적 어려움을 노출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신의 체면을 잃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사회적 지지를 덜 추구한다고 한다(Kim et al., 2006). 그러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에게 개인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정당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하여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전 비교문화 연구들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지각한 스트레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동일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이전 연구들과 동일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타인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이 사회적 지지의 추구하고 관련된 가능성도 있다.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추구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 신경증 성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경우 신경증 성향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높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사회적 지지가 건강에 더욱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인들에게서는 신경증 성향과 스트레스 수준이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ark et al., 2012).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요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Gross, Sutton, & Ketelaar, 1998),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사회적 지지의 추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더욱 염려할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선행 비교문화 연구에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더 높은 신경증 성향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다수의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성격 변수들 및 개인차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이전 연구들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행 비교문화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추구 수준을 회고적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겸양 편향(moderacy bias), 극단 편향(extremity bias) 및 순응 편향(acquiescence bias)과 같이 문화 간 평균 비교 시에 개입될 수 있는 반응 편향들(Heine, 2008)이나 참조집단 효과(Peng, Nisbett, & Wong, 1997)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참조집단을 제시한 후 사회적 지지 관련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거나, 각 문화권의 사람들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를 직접 비교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견주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 내적 연구를 수행하여 문화성향과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필요도 있다. 즉, 서구 문화권에서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는지, 혹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주로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계적-상호의존 자기개념(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Cross, Bacon, Morris, 2000)에 따른 사회적 지지 추구의 차이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우선적으로 여길지라도,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과의 관계 속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 만큼 상호의존성을 보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Cross와 동료들의 연구(2000)에서 미국인들 가운데 관계적-상호의존 자기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점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주변 사람

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자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높은 관계적-상호의존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노출을 더 많이 하며, 사회적 지지의 지각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선행 연구에서의 서구 문화권 사람들이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관계적-상호의존 자기개념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비교문화 연구와 문화 내 개인차 연구 간의 불일치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설명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뿐만 아니라, 관계적-상호의존 자기의 측면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⁶⁾

종합하건대, 본 연구를 통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을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지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많이 제공함과 동시에 본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회적 지지를 많이 추구하는 등, 타인과 사회적 지지를 균형적으로 주고받음을 관찰하였다. 요컨대, 사회적 지지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들에서 관찰된 바와는 상반되게,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며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들은 사회적 행위를 문화 간 차원에서 비교한 연구와 문화 내 개인 차원에서 비교한 연구가 서로 패턴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와 같은 시사점을 가지는 연구로 Kitayama, Park, Sevincer, Karasawa, & Uskul, 2009; Na, Grossmann, Varnum, Kitayama, Gonzalez, & Nisbett, 2010 참조). 각 문화의 모든 구성원들이 해당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특성들을 동일한 정도로 지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해당 문화의 가치와 신념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Leung & Cohen, 2011). 따라서 앞으로 개인과 상황, 그리고 문화적 특성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서로 비교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경란 (2000). 우리주의문화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소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상우 (2003).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스트레스 지각이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은정 (2005). 문화성향에 따른 우울취약성, 대인관계성향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운조 (2007).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스트레스 지각, 대처방식 및 우울취약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 (2006).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또래동조성, 의사결정방식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관계적-상호의존 자기개념(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조금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 85-106.
- 조금호 (2007). 문화성향, 성역할 정체감 및 도덕적 지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05-126.
- Adams, G., & Plaut, V. C. (2003). The cultural grounding of personal relationship: Friendship in North America and West African worlds. *Personal Relationships*, 10, 333-348.
- Antonucci, T. C., & Jackson, J. S. (1990). The role of reciprocity in social support. In B. R. Sarason, I. G. Sarason, & G. R. Pierce (Eds.), *Social support: An international view* (pp.173-198). New York: Wiley.
- Benet-Martinez, V., & Karakitapoglu-Aygun, Z. (2003). The interplay of cultural syndromes and personality in predicting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 38-60.
- Benet-Martinez, V., Leu, J., Lee, F., & Morris, M. (2002). Negotiating biculturalism: Cultural frame switching in biculturals with oppositional vs. compatible cultural identit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92-516.
- Bowling, N. A., Beehr, T. A., & Swader, W. M. (2004). Giving and receiving social support at work: The roles of personality and reciproc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2005), 476-489.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183.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S., Sherrod, D. R., & Clark, M. S. (1986). Social skills and the stress-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63-973.
- Conway, L. G., Sexton, S., & Tweed, R. G. (2006). Collectivism and governmentally initiated restrictions: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is across nations and within a n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 1-23.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791-808.
- Dunkel-Schetter, C., Folkman, S., & Lazarus, R. S. (1987). Correlates of social support recei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1-80.
- Dunning, D., Meyerowitz, J. A., & Holzberg, A. D. (1989). Ambiguity and self-evaluation: The role of idiosyncratic trait definitions in self-serving assessments of 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82-1090.
- Fiedler, K., Walther, E., Freytag, P., & Nickel, S. (2003). Inductive reasoning and judgment interference: Experiments on the Simpson paradox.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4-18.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915-981). New York: McGraw-Hill.
- Fu, J. H.-Y., Morris, M. W., Lee, S.-L., Chao, M.-C., Chiu, C.-Y., & Hong, Y.-Y. (2007).

- Epistemic motives and cultural conformity: Need for closure, culture, and context as determinants of conflict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91-207.
- Gouldner, A. W. (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61-178.
- Gross, J. J., Sutton, S. K., & Ketelaar, T. (1998). Relations between affect and personality: Support for the affect-level and affective reactivity hypothe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279-288.
- Heine, S. J. (2008). *Cultural psychology*. New York: W. W. Norton.
- Heller, K. (1979).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revention and treatment implications. In A. P. Goldstein & P. H. Kanfer (Eds.), *Maximizing treatment gains: Transfer enhancement in psychotherapy*. New York: Academic Press.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Newbury Park, CA: Sage.
- Homans, G. C. (1961).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Jou, Y. H., & Fukada, H. (2002). Stress, health, and reciprocity and sufficiency of social support: The case of university students in Jap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353-370.
- Kim, H. S., Sherman, D. K., Ko, D., & Taylor, S. E. (2006). Pursuit of happiness and pursuit of harmony: Culture,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see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595-1607.
- Kim, H. S., Sherman, D. K., & Taylor, S. E. (2008). Culture and social support. *American Psychologist*, 63, 518-526.
- Kitayama, S., Ishii, K., Imada, R., Takemura, K., & Ramaswamy, J. (2006). Voluntary settlement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Evidence from Japan's "northern fronti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369-384.
- Kitayama, S., & Park, H. (2007). Cultural Shaping of Self, Emotion, and Well-Being: How Does It Work?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 202-222.
- Kitayama, S., Park, H., Sevincer, A. T., Karasawa, M., & Uskul, A. K. (2009). A cultural task analysis of implicit independence: Comparing North America, Western Europe, and East As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236-255.
- Leung, A. K.-Y., & Cohen, D. (2011). Within- and between-culture variation: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cultural logics of honor, face, and dignity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507-526.
- Morling, B., Kitayama, S., & Miyamoto, Y. (2003). American and Japanese women use different coping strategies during normal pregnanc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533-1546.
- Na, J., Grossmann, I., Varnum, M. E. W., Kitayama, S., Gonzalez, R., & Nisbett, R. E. (2010).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always reducible to individual differences. *Proceedings of*

-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A*, 107, 6192-6197.
- Park, J., Kitayama, S., Karasawa, M., Curhan, K., Markus, H. R., Kawakami, N., Miyamoto, Y., Love, G. D., Coe, C. L., & Ryff, C. D. (2012). Clarifying the links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Culture, stress, and neuroticism matter.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0, 1-10.
- Plaut, V. C., Markus, H. R., & Lachman, M. E. (2002). Place matters: Consensual features and regional variation in American well-being and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60-184.
- Sarason, B. R., Sarason, I. G., Hacker, T. A., & Basham, B. R. (1985). Concomitants of social support: Social skill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469-480.
- Shen, H., Wan, F., & Wyer, R. S. (2011).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fusal to accept a small gift: The differential influence of reciprocity norms on Asians and North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271-281.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W. Hartup, & Z. Rubin (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pp.51-71). Hillsdale, NJ: Erlbaum.
- Taylor, S. E. (2007). Social support. In H. S. Friedman & R. C. Silver (Eds.), *Foundations of Health Psychology* (pp.145-1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S. E., Sherman, D. K., Kim, H. S., Jarcho, J., Takagi, K., & Dunagan, M. S. (2004). Culture and social support: Who seeks it and why?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87, 354-362.
- Thibaut, J.,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ew York: Wiley.
- Triandis, H.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Ed.), *Cross-cultural Perspectiv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41-133).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riandis, H. C., Chan, D., Bhawuk, D., & Iwao, S. (1995). Multimethod probes of allocentrism and idiocent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0, 461-480.
- Uchida, Y., Kitayama, S., Mesquita, B., Reyes, J. A. S., & Morling, B. (2008). Is perceived emotional support beneficial? Well-being and health in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4, 741-754.
- Vandello, J. A., & Cohen, D. (1999). Patter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cross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279-292.
- Wills, T. A. (1991).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2, pp.265-289). Thousand Oaks, CA:
Sage.

1 차원고접수 : 2012.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3. 3. 02.

최종게재결정 : 2013. 3. 04.

Cultural Self-Orientation and Social Support

Seungbeom 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cent cross-cultural research on social support demonstrated that people from individualistic cultural contexts (e.g., European Americans) are more willing than people from collectivistic cultural contexts (e.g., Asians, Asian Americans) to use social support for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However, within-culture studies conducted in Korea revealed that individuals with a collectivistic self-orientation are more likely to seek social support, compared to those with an individualistic self-orientation. The present study explored whether and how the pursuit and provision of social support in Korean college students would vary as a function of individuals' cultural self-orientation. It was found in Study 1 that individuals with a stronger collectivistic self-orientation, as compared with those with a weaker collectivistic self-orientation, were more likely to seek social support and to consider the pursuit social support (vs. exerting personal effort) a more effective means for coping with stress. Moreover, Study 2 showed that the more collectivistic, the more balanced individuals became in the pursuit and provision of social suppor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on culture and social support are discussed.

Key words : cultural self-orientation, social support seeking, social support provision